[별지 제2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다락원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활동목표	북한산둘레길의 위치적, 지리적인 특색을 다락원길을 따라 멋진 경관과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음.		
해설주제	다락원길 이야기		
해설재료	사진교구재	소요시간(')	1시간 3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동기유발	인사 및 소개	북한산국립공원 소개	지도손수건	5
	둘레길 설명	둘레길의 설치 목적과 이야기	지도리플렛	15
해설주제	다락원에 대하여	다락원의 유래 및 뜻	-	30
해설심화	원도봉에 대하여	원도봉의 유래와 다양한 볼거리	-	30
마무리	생각나누기	마무리 인사	-	10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다락원길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인사 및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 안내원 ○○○입니다. 빡빡한 일상에서 이렇게 도심속에 위치한 도봉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북한산둘레길중에서 다락원길을 걸으며 다양한 나무와 꽃과 곤충을 살펴보며, 짙은 녹색의 숲 ,싱그러운 풀 냄새, 시원한 계곡바람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문해주신 국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몇 개의 국립공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여러분이 서 계신 이 곳,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에 15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북한산 · 북쪽으로는 도봉산이 위치하며 사패산까지 합쳐서 북한산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도심으로 둘러싸여 생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고립된 환경조건에도 도심지역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녹색허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아주 고마운 산이기도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다락원길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 둘레길의 설치목적과 이야기	북한산 국립공원은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살아 숨쉬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길”이란 목표로 저지대의 기존의 샛길, 탐방로, 마을길 등을 연결한 “북한산둘레길” 을 조성하여 탐방문화 다양화 및 사회적 약자층에게 국립공원 눈높이를 낮추는 등 탐방객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산 주변에는 은평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해마다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 북한산 국립공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급격한 탐방객수 증가에 따라 공원내 자연자원이 지속적으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 학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에서 조속히 훼손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내 주요 동식물 자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고지대를 벗어난 저지대 탐방로를 중심으로 노약자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단위로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최근 웰빙 바람 등 국민적 걷기 열풍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걷기 운동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숲길, 변산 마실길과 같이 우리 북한산둘레길 역시 저지대 자락을 중심으로 유행의 흐름에 발맞춰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이 걷기 운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다락원길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둘레길의 설치목적과 이야기	최근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저지대 수평 산책로인 북한산 둘레길이 만들어져 보다 여유롭고 편안하게 걷기운동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각 구간마다 물길, 흙길, 숲길과 마을길 산책로의 형태 및 자연자원등에 따라 각각 21가지의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둘레길은 저지대 수평 산책로이긴 하지만 코스별로 난이도가 높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둘레 길로 여행을 떠나기 앞서 몸풀기 운동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몸 풀기가 끝났다면 진짜 둘레 길로 트레킹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둘레길은 산 속의 숲길과 주택가의 산책길이 서로 이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 조용히 지나가기, 쓰레기 되가져가기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셔야 합니다. 둘레길을 걷다보면 곳곳마다 표지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문양이 담긴 뜻을 풀이하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하나 되는 이미지를 산과 강과 바다의 둘레를 걷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산과 강, 바다와 사람의 유기적인 이미지가 가슴에 와 닿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마크 속에 담긴 문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저와함께 규칙적인 걷기 운동으로 여유로운 다락원길 산행을 즐겨보실까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다락원길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다락원의 유래	총 21개의 북한산둘레길 테마중에서 원도봉지구 제17구간 다락원길입니다. 다락원에서 시작하여 구간의 대부분이 공원 외 지역을 지나가는 구간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를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락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락원이란 조선시대에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팔았던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수 없지만 다락원 캠프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 및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동호인과 직장인들의 단합을 위한 연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락한 시설로 청소년과 이용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락원길에서는 일부 민가와 텃밭등을 지나칠 수 있으며, 숲속 작은 개울가도 건널 수 있어 도심속 시골의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구간에 비해 군사시설인 수 많은 벙커와 총성소리를 듣게 되는데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구간은 수도인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잭슨캠프(미군과 카추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간에 비해 많은 부분 도시광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제 (원)도봉산으로 발길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다락원길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원도봉의 유래와 다양한 볼거리	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오신 이곳은 (원)도봉산입니다. (원)도봉산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의 접경지대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북한산(北漢山)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 북단에 위치합니다. 우이령(牛耳嶺:일명 바위고개)을 경계로 북한산과 나란히 솟아 있으며, 북으로 사패산이 연이어 있습니다. 산 전체가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운봉·만장봉·선인봉·주봉·우이암과 서쪽으로 5개의 암봉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오봉 등 각 봉우리는 기복과 굴곡이 다양하여 절경을 이루는데, 선인봉은 암벽 등반코스로 유명합니다. 산중에는 인근 60여 개 사찰 중 제일 오래된 건축물인 천축사(天竺寺)를 비롯하여 망월사(望月寺)·쌍룡사(雙龍寺)·회룡사(回龍寺) 등의 명찰이 많아 연중 참례객·관광객이 찾습니다. 도봉산의 3대 계곡은 문사동계곡, 망월사계곡(원도봉계곡), 보문사계곡(무수골)으로서 이 계곡들이 바로 산행기점과 연결되는데, 도봉동계곡·송추계곡·망월사계곡·오봉계곡·용어천계곡 등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산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이령을 포장도로로 건설하려 하였으나, 환경보호단체들의 제기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둘레길을 저와 함께 걸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도봉산에 다양한 볼거리와 생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다락원길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 마무리 및 끝인사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다락원길' 걷기체험 어떠셨나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아시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END 가 아닌 AND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매일 반복된 일과나 일상에서 식상함에 찌드신분들, 육체 정신적으로 피로하신분들, 일반 산에 와서 놀다 간다는 의미보다는 아름다운 숲과 계곡, 그리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곤충과 식물들. 우리는 모두 그들을 보고 느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둘레길을 걷는동안 움직이지 않는 나무와 풀같아 보일 지라도, 비록 작은 개미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겠습니다. 개미의 시각에선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크게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징그럽다고 밟아 죽이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아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코끼리는 인간이 총을 들고 먼저 잡으려 하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봉산은 몇몇 탐방객들의 바르지 못한 탐방문화로 인해 도봉산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토양오염, 담뱃불로 인한 산불 등으로 많은 동, 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산불은 정말 크나큰 재해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다락원길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 마무리 및 끝인사	산불로 인해 숲이 사라진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생명들은 터전을 잃고, 더 나아서는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숲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유도) 네, 아주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며 산에서 취사나 흡연하는 행위는 금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숲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다락원길' 을 함께한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000 였습니다.